

## 『토지』에 나타난 가족문제와 모성성

이 상 진\*

1. 서론 : 역사 밖의 어머니, 서사 속의 어머니
2. 가정성(domesticity)과 모성환원론
3. 가족 지키기와 희생적 모성성 : 서희의 경우
4. 가족으로부터의 일탈과 황폐화된 모성성
5. 가족원 되기와 매개적 모성성 : 월선과 서울네의 경우
6. 결론 : 모성성과 생명

### 초록

『토지』의 배경이 되는 구한말에서 해방기까지는 대내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삶에 있어서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또 전통가족제도 하에서 대개의 여성은 가정중심성에 얽매인 생활을 하였고, 그것은 모성으로 환원된 모습을 보였다. 가족주의 소설로 평가되는 『토지』에서는 모성성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인받아야 했던 현실논리와 여성주체로서 삶의 갈등이 다양한 형태의 모성성으로 드러났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집 떠난 남성을 기다리며 자식들에게 헌신적인 모성을 보이는 인물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은근한 조력자'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여성의 도덕적 우월성의 근거로 파악할 수 있다. 가족을 일탈하고 모성성을 잃는 인물들은 도덕적 결핍자로서 보살핌의 덕목이 부재하는 인물이거나, 정절을 훼손당하여 죄의식에 의해 스스로 모성을 포기하는 인물이거나, 여성으로서 사회참여나 성적 선택에 의해 가족과 모성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작가는 모성성과 관련하여 정절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지적하며, 여성성의 회복을 중시하고 있으며, 한편 도덕적인 결핍을 모성부재의 큰 원인으로 짚고 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미약하던 시기에 여성은 가족을 삶의 근거로 삼아야 했다.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어도 모성성을

\* 연세대 강사

때개로 가정을 이루려 한 두 인물의 대립적 형상화에 의해서도 역시 도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토지』에 대한 평가는 모순적이다. 그러나 『토지』가 다양한 인물의 삶을 세밀히 추적하는 독특한 서사임을 전제할 때 어떤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작가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기초로서 모성의 포용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가 현실의 문제와 부딪쳐 대응하는 과정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려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작가의 생명사상과 모성성을 관계짓는 논의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1. 서론 : 역사 밖의 어머니, 서사 속의 어머니

『토지』는 최참판가를 중심으로 한 여성 3대의 이야기, 남성부재의 가족사로 특히 주목받았던 작품이다. 엄청난 재산과 토지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다시 회복한다는 극적인 줄거리는 이 작품의 초반에 가장 독자의 흥미를 끌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한 여성이 가문을 재건한다는 표면의 줄거리 때문에 이 소설이 여성의 잠재적 가능성과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페미니즘적인 소설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회의 행동을 비롯하여 이 작품을 버티고 있는 사상이 실상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의 전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머니 대부분은 당대의 사회윤리에 종속된 삶의 값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을 살다간다. 격동기였지만 그 역사의 어떤 부분에서도 앞장서지 못했고, 변화의 일 역할도 하지 못했으며 그저 가정을 지키는 일에 골몰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사밖에 있거나, 서사 속에서 침묵하는 어머니는 아니다. 오히려 『토지』에 드러난 ‘집 밖의 아버지(혹은 떠도는 아버지)’보다 훨씬 의미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작가는 역사의 밖에 있었던 무력한 어머니를 『토지』의 서사 속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그들이 끊임없이 노동하고 생산해내는 풍요한 생명력으로 존재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 작품이 생명

이 넘치는 대지에 풍요로운 생산의 터전으로서의 모성적 이미지를 심어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과 상응한다.

실상 이 두 평가<sup>1)</sup>는 양립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사회적, 제도적인 여성의 역할 문제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인간의 생명과 유지, 변이에 대한 모성적 의미에 대한 것으로 지극히 생물학적이고 신화적인 바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토지』에서 그려졌듯, 풍요하고 포용적인 이미지의 대지이며, 동시에 지극한 삶의 의지이며, 사회적인 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토지』는 어떤 고매한 의식을 표현한 것이기보다, 당대 여인들의 삶을 그대로 묘사하려 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인물과 인물의 관계에서 자주 발견되는 모순점들은, 그러므로 『토지』가 가지는 모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껴안고 있는 모순이라 해야 옳다.

다양한 인물의 삶을 추적하고 있는 『토지』에는 역시 다양한 어머니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더욱이 『토지』의 배경이 되는 구한말에서 해방기까지는 대내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삶에 있어서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관계와 연결해볼 때 다양한 어머니의 상은 바로 당대의 삶에 대한 작가의 역사적 인식 및 여성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하여, 이 논문은 『토지』의 어머니상의 면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족주의와 모성성, 도덕성간의 관계를 분석해보고 나아가 작가의 생명사상과의 연계를 찾아볼 것이다.

---

1)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토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김성희 외, 「『토지』에 나타난 여성문제 인식과 역사의식」(『여성』 3, 창작과비평사, 1989)과 혼사모티프와 성(性)의 형식을 분석하여 해한과 상생의 원리를 대지의 모성적 이미지에서 끌어내고 있는 우찬제, 「지모신의 상상력과 생명의 미학」(『한·생명·대자대비』, 숲, 1995)의 글이 각각 이런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2. 가정성(domesticity)과 모성환원론

『토지』는 흔히 가족주의적 소설<sup>2)</sup>이라고 평가된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서사의 응축이라고 보아도 좋을 만큼 가족의 의미가 간절하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란 결혼과 혈연이라는 관계로 결부된 사람들이 이룩한 사회집단이며 동거(同居)·동재(同財)의 공동체이고, 생식과 양육의 기능을 가진 생활공동체이다.<sup>3)</sup> 가족은 모든 사회의 경제적·혈연적·지연적 기본 단위로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유교사회에서 가(家)는 국가 존속의 기본개념이었다. 유교사회에서 가족의 형성과 존속은 남성의 권리이며 의무였고 따라서 가부장은 가족이라는 왕국의 군주와 같았다. 가부장이 전통 가족의 신이라면 여성은 이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인간이었다. 여성은 모든 삶의 기본 바탕이 되는 가족을 떠나 삶의 존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sup>4)</sup>

서양에서도 이러한 가정중심성(domesticity)은 여성의 삶을 지배해 온 이데올로기이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의 팽배는 바로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은 소거한 채 모성으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sup>5)</sup> 즉, 여성은

2) 이러한 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문으로 서정미, 『『토지』의 한과 삶』(『창작과 비평』, 1980. 여름)을 들 수 있다.

3)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일지사, 1975), p.27.

4) 그것은 다만 제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혈연중심주의적 태도와도 관계 있다. 가족의 성립 조건은 앞서서도 보았듯 결혼이고 이의 결과로 생긴 혈연공동체가 곧 가족이다. 이것은 가족을 생물학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많이 서사화된 것이 계모 모티프서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이 모티프는 혈연적 관계가 없는 어머니가 악한으로 그려지는 전형적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지는 『토지』에서 단 한 번도 계모와 전설자식간의 선악 이분법적인 갈등이 그려지지 않는 것은(이야기의 내용과 관계없이 두만네가 악한 계모와 사위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단 한 번 나온다. 2권 p.287.) 계모 모티프로 된 이야기가 많은 우리의 서사전통상 흥미 있는 특징이다.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집문당, 1996) 참조.

5) 이정옥, 「페미니즘과 모성 : 거부와 찬양의 변증법」, 심영희·정진성·윤정로

가정에서 출산과 수유, 양육의 과정에 충실해야 하는 어머니로서 그 위치를 보장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모성환원론은 여성에게 ‘보살핌의 윤리’<sup>6)</sup>를 권장하고, 모성을 신화화하면서 어머니를 더욱 억압하여 왔다. 어머니로서 양육의 기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보살핌의 만족, 게다가 보상체계까지 갖춘 모성론은 여성을 오랫동안 집이라는 닫힌 사회에 갇혀있게 하였던 것이다.

사실, 생물학적 어머니가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과거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생각할 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결혼은 가족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어머니일(mothering) 수행이 출산에 의해 자연적이고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역할이며, 어머니일 수행의 목적은 세대에 따라서 다르고 사회경제 체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sup>7)</sup>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발견한 여성들에 의해 이러한 모성환원론은 심각한 저항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은 여성에게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도피처이다. 따라서 여성은 이러한 ‘자궁가족(uterine family)’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과 동시에 이러한 가족제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자 하는 일탈의 욕망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 이 욕망은 여성의 심리에 초점을 둔 현대소설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주제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욕망 확대와 신분과 경제·사회적 태도의 변화가 부수되는 변동기를 배경으로 하는 『토지』에서 여성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으로 그려지는가. 이 작품에서 가족과 모성성의 관계로 볼 때 그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가족지키기와 가족 이탈, 그리고 가족으로의 영입이다. 즉 생물학적 어머니로서 온갖 고난을 이기고 가족을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나남, 1999), p.47.

6) 이는 해방으로서의 보살핌이라기보다 종속으로서의 보살핌, 가부장제하에서 일종의 생존전략으로서의 보살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심영희, 「‘자식바라기’ 어머니의 전통성과 모성성」, 심영희 외 공편, 앞의 책, pp.382~384 참조.

7) 임정빈·정혜정 공저, 『성 역할과 여성』(학지사, 1997), pp.225~244.

지키는 어머니, 외부적인 갈등과 변화에 의해 가족을 뛰쳐나가는 어머니, 그리고 가족원으로 영입되기 위해 남의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여성이다.

물론 가정을 버리는 노라를 근대적인 인물유형으로 보고, 전통적 가족을 지키거나 이에 영입되려는 여성을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의 원형적인 여성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사랑이 결여된 채 의무만이 남은 경우라면 여성에게 그것은 감옥이요, 그 가족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랑으로 모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구성원에게 가족은 유토피아이지 감옥은 아니다. 박정리는 가족주의를 결코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보지 않는다. 『토지』에서 어머니는 집을 나가든 집을 지키든 가족제도 자체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전통적 가족제도에 적응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거나이다. 작가는 지나간 시기의 환경을 그대로 둔 채 도덕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생명주의적 관점 등 다양한 면에서 어머니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같은 작가의 관점은 오늘날의 여성주의적 관점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 3. 가족 지키기와 희생적 모성성 : 서희의 경우

안정된 상황에서 가정은 이상적인 자녀양육과 평화의 장이 되지만 가치관의 혼란기에 가정은 변화의 중심에 놓인다. 『토지』에서 그 위기와 혼란에 직면한 남성은 더 이상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탐색의 길을 떠났다. 그리고 기다림은 여성의 몫이었다.<sup>8)</sup> 『토지』의 많은

---

8) 레이버지는 여성적인 양식이 전통적으로 '기다림의 양식'으로 존재해 온 반면, 남성적인 양식은 전형적으로 '탐색의 양식'으로 존재해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성의 삶은 발전적·선적 변화와 성취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반복적이고, 순환적이고, 정적이라는 것이다. Kathryn Allen Rabuzzi, *The Sacred and the Feminism*(New York : Seabury, 1982), pp.143~145. 조세핀 도노번,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문예출판사, 1993), pp.233~234에서 재인용.

아버지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집 밖을 떠도는 자’이다. 어떤 인물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또 어떤 인물은 가정 밖의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 또 어떤 인물은 자신을 구속하는 억압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정을 벗어났다. 이는 시대적 상황이 불안정한 과도기였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는 『토지』에서 서희나, 염씨, 박씨, 기성네 등은 집을 떠난 남자를 기다리며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들<sup>9)</sup>이다. 이동진의 부인 염씨는 ‘부모나 자식들 몰래 잠시 들렀다가 사랑에 가서 취침하는 것을 예로 아는(3:26)’<sup>10)</sup> 남편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냈으며, 그녀의 며느리 박씨 역시 떠난 남편을 기다리며 자식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또 기성네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움으로써 한 가정의 며느리, 또 어머니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인물이다.<sup>11)</sup> 이

9) 이 혼란기에 남자로부터 버려진(?) 구식여성의 삶의 실패는 한 보통 남성이 쓴 진술한 글에서 분명히 전해 받을 수 있다.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보다는 시부모, 더욱이 시어머니에게 속한 사람이고, 집을 떠난 남편과 관계없이 호적상 엄연한 아내로서 자식을 기른다. ‘그는 그것(자식을 일컬음) 두 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기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자란 뒤에 일신을 의지하여 노후의 재미를 볼 것을 유일한 낙으로 알고 산다고 한다’(한○봉, 「신구가정생활의 장점과 단점-막한 일 큰일날 문제」, 『별건곤』(1929. 12); 김진송, 『현대성의 형성-서울에 만스홀을 許하라』(현실문화연구, 1999), pp.237~240)는 말은 염씨나 박씨, 서희, 기성네와 같은 당시 구식여성이 보여주는 모성환원의 심리를 나타내는 극단적 예가 될 것이다.

10) 박경리의 『토지』에서 인용된 페이지의 표시. 앞으로 인용되는 『토지』는 1994년 솔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을 텍스트로 하며, 인용시 이와 같이 ‘(권수 : 페이지)’의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11) 기성네의 남편 김두만은 거꾸로 보면 자궁가족에 의한 또다른 희생자이다. 그는 부모가 정해준 여자인 기성네와 이룬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고, 그의 신분적 열등감은 변동기의 사소한 기회를 이용하여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새로운 삶을 꾸리게 만들었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의 양을례와 같은 인물이다. 다른 점은 두만이 아버지이고, 양을례가 어머니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 두 인물의 가정에서의 위치에 따라 달리 평가하지 않는다. 두만이나 양을례나 도덕적인 결핍이 있는 인물, 개인의 욕망에 의해 가족을 버리는 인물로 평가

들에게 가정이라는 소유주는 그대로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끝은 아내로서 환희의 해후가 아니었다.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 남성의 자리를 메우며 다음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야 했던 것이다.

이들 여성에게 어려움이 단지 아내로서 여성성의 무기한 박탈이었던 ‘기다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간 열쇠를 쥔 안주인으로서 ‘주부권’<sup>12)</sup>은 남성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가운데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생계유지의 의무가 되었다. 염씨나 박씨는 누군가의 후원을 받거나, 양반가 여성으로서의 어려웠을 삼바느질 등 굵은 일을 해가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다. 모성성으로 환원된 여성의 역할은 다만 자식에 대한 애정적 보살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식의 온전한 사회화의 기초가 되는 가족 지키기를 위한 자기 희생, 이타주의를 포함<sup>13)</sup>한 것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모성성의 내용이다.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에 있었던 서희는 단순히 가족을 지키는 문제에만 연연했던 인물은 아니다. 그녀는 여가장으로서 가문의 존속과 재건을 위해 온몸을 바쳤다. 그것은 상처 난 자존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은 두 아들로 하여금 가문을 잇게 하는 데로 향해졌다. 그녀는 당시 양반가의 여성과는 달리 아이들을 제 젖으로 키울 것을 고집할 만큼(6 : 170) 핏줄에 대한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녀가 길상과 결혼하여 성을 바꾼 것도 가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 점에서

---

하고 있는 것이다.

- 12)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 이래로 남자가 ‘가장권’을 누렸다면 여자는 주부이자 공간 열쇠를 쥔 안주인으로서 ‘주부권’을 누린 전통이 있다고 하며 남녀의 성역할 분업의 합리성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역할 분업은 결코 여성에게 유리한 전통이 아닌, 그대로 비합리적인 전통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김혜경, 『여성과 가족』,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 강의』(동녘, 1991), p.121.
- 13) 적어도 19세기 이래로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의 중요한 사명으로 찬미되었고, 이런 어머니다움의 본질은 애정적 보살핌, 자기 희생, 이타주의라는 특성으로 정의되었다. 베리 쏘온·매릴린 알롭 엮음, 권오주 외 역,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한울아카데미, 1991), p.21.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조건적 집착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헌신적 애정은 가문 지키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니고 있던 모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 모순이란 가문 지키기와 명백히 모순되는 여성삼대의 역사이다.

서희는 생각했다. 최참판댁 가문의 말로는 세 사람의 여자로 하여 난도질을 당한 것이라고. 윤씨는 불의의 자식을 낳았고, 별당아씨는 시동생과 간통하여 달아났으며 서희 자신은 하인과 혼인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 (7 : 270)

그녀가 가장 먼저 넘어서야 할 벽은 아들에게 붙여진 ‘하인의 자식’이라는 불명예를 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재중인 길상을 하인이 아닌 독립지사로 격상시키려는 애처로운 노력을 했다.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꿰를 수 없는 핏줄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할머니로서는 버릴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김환에 대한 모성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다.<sup>14)</sup> 또한 자신이 그저 어머니가 아니라 한 여성이고, 사랑받을 젊음임을 느끼게 한 박약사의 사랑과 자살로 비로소 그녀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불륜을 이해하게 되었다.<sup>15)</sup>

이렇게 볼 때 그녀는 분명 걸보기에 훌륭하게 자신의 가족과 가문을 지켜내고,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였지만 그것은 3대를 이어온 가문의 해

---

14) 서희는 길상과 함께 온 김환을 마주하고 혼란에 빠졌다. “수습될 수 없는 혼란”에서 그녀의 유일한 출구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 어느 편을 위해서도 잃어서는 안되는 사랑”(6 : 341)이라고 냉정을 회복한다. 그 때문에 그녀는 길상을 잃을 수가 없었고, 그에 대한 긍정은 곧 그와 관계된 김환에 대한 긍정이 되었다. 이후 진주의 서희집으로 몸을 숨기러 온 김환을 서희가 도와주는 행동은 그녀가 결국 자신의 의부이자, 삼촌이며, 할머니의 아들을 핏줄로 받아들였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15) 서희의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상진, 『<土地> 연구』(월인, 1999), pp.150~151 ; 정호웅, 『『토지』의 주제—한·생명·대자대비』, 『한·생명·대자대비』(솔, 1995), pp.212~213 참조.

체 위기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후반부에 기화의 딸인 양현을 기꺼이 양딸로 삼고 며느리로 삼기까지 원했던 것은 신분의 변동과 여성의 자유로운 사랑의 문제를 온몸으로 느낀 후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보아온 여성 인물들은 삶의 내용은 달라도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한 희생적인 모성성을 통해 가정 지키기를 이루어낸 어머니들이다. 이들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충족적인 상태에 있지 못했지만 자식과의 잠재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작가는 이 인물들이 보이는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애정과 남편에 대한 정절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있다.<sup>16)</sup> 이 점에서 『토지』의 모성성은 일단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며 ‘가부장제의 은밀한 조력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여권주의적 시각과 분명히 배치되는 일이다. 만일 그들이

---

16) 백지연은 『토지』에서 유교질서에 억압당하는 여성들의 삶을 재현하면서도 정신적 기개와 정절을 상징하는 유교적 신분윤리에 대한 숭고하고도 낭만적인 지향성과 그리움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이는 양반계급의 존재에 온정적인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하고 있다(백지연, 「박경리의 『토지』-근대체험의 이중성과 여성주체의 신화」, 『역사비평』, 1998. 여름, p.346). 『토지』에는 분명히 이러한 양가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이 해석자를 난감하게 하는 부분이다. 여성작가로서, 분명한 여성억압기제였던 유교윤리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의 철퇴를 내리지 않는 것이 웬지 못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작가가 받아야 했던 비난의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분명히 유교윤리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의 삶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좀더 광의의 차원에서이다. 유교윤리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앞에서 영성을 인식했던 직관이 희석되고 그 대신에 자리잡은 인위적 행동주의였다고 비판하며(박경리, 「언어의 선택과 근사치」, 『박경리 강의노트-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현대문학사, 1995)), 사랑과 희생이 전제되지 않은 삼강오륜의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반가의 여성들의 희생과 정절과 인내의 모습을 차라리 그리움을 가지고 그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양반계급의 존재에 대한 온정적 태도는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이 가졌던 인간적 자존심에 대한 그리움일 뿐이다.

가다림을 제치고, 또는 모성을 희생하여 당당한 주체로서 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눈으로 이들의 삶을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의 남성과는 달리 여성들에게 삶의 변화란 봉건적 가치관과의 완전한 결별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었다.<sup>17)</sup> 그러므로 이들의 삶은 그대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분명하게 남긴 상처의 흔적이다. 가다림의 시간은 결코 정체되고 사장된 시간이 아니었다. 과도기를 거치고 역사가 흘러가듯, 이들은 어머니의 상처를 딛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키워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이들의 모습은 여성의 도덕적 우월성의 근거<sup>18)</sup>라는 전혀 다른 평가를 얻는다. 이들의 보살핌의 윤리는 분명 우리에게 결핍된 덕목으로서 내면화해야 마땅한 것이고, 또한 이 작품에서 인간적 연민의 씨앗인 모성은 작가의 생명주의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 4. 가족으로부터의 일탈과 황폐화된 모성성

수직적 혈연주의로 이름지을 수 있는 지난날의 우리 가족전통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효행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박경리는 『토지』에서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는 모자관계는 추악한 예고이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한다.

“효행이 부모의 권리가 된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권리 말입니다. 심청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말살해야 합니다. 가장 추악한 예고이즘, 예고이즘의 극치 아닙니까.” (13 : 475)

17) 김진송, 앞의 책, pp.205~206.

18) 여성주의 입장에서 보살핌, 양육 등으로 상징되는 여성의 전통적 모성성이 바로 여성의 다름의 근거, 더 나아가 도덕적 우월성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견해는 평화주의 여성론, 생태주의 여성론과 접맥된다. 이정옥, 앞의 글, pp.58~59.

남성들의 대화 중에 나온 것이지만,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에 대해 ‘성격적 불구자’라는 낙인을 찍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임을 주장하는 것을 추악한 에고이즘으로 보는 것이다. 심지어 효란 ‘윤리도덕이 가장 악용된 경우’라고까지 말한다(7: 428).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떠한가? 어떤 경우에도 자식에 대해 절대적인 사랑을 주어야 하는가? 사실상 자식이 무조건적인 효행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라고 해서 모두 ‘훌륭한 어머니’의 신화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 완벽할 수는 없다.

표면적으로 일괄할 때 『토지』의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분명 공평하지 않다. 작가는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이기적인 어머니, 임이네나 석양순, 양을례, 홍씨와 같은 인물은 추악한 에고이즘의 극치라고 비판하는 한편, 윤씨부인이나 유인실, 기화와 별당아씨에 대해서는 그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연민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각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 도덕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전자의 인물들이 자식에 대한 부분 외에도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데 비해, 후자의 인물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던 불행한 어머니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어머니들의 모습은 도덕성과 정절이데올로기, 여성성이 모성성과 맺는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도덕성의 결핍, 모성성의 부재 : 임이네의 경우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임이네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자기 모순적인 요소를 지니고 입체적으로 변화하는 한편, 변함없이 이기적인 악한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초반부터 작가가 임이네를 부정적으로 그린 것은 아니다. 자연인으로 표현되는 임이네는 초반에 성적매력과 모성성을 동시에 지닌 양면적 인물로 묘사되었다.

대지에 뿌리를 둔, 생산적인 모성이며 자연으로서 차라리 신화적인 존재에 가깝다. 임신한 그녀가 여러 번 마주치는 용이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보자.

여자는 염치불구하고 용이의 눈을 더듬어 본다. 풍만한 정기를 풀어서 용이 얼굴에다 설설 뿌리는 것 같은 웃음을 머금고, 그는 임신한 여자였을 뿐 어미가 아니었다. 음탕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이었다. (1:104)

임신한 여성(암컷)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외모가 비여성적으로 변화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나, 임이네는 오히려 그녀의 풍성한 생명력이 용이에게 매력의 근거가 되었다. 용이의 부인 강청택은 임이네와 대조적으로 깡마른 체구의 불임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이를 계속 생산해내는 임이네는 그 자체가 여성만의 야생의 영역(wild zone)<sup>19)</sup>을 신비롭게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다.<sup>20)</sup> 호열자로 사람들이 다 죽어 가는 사신(死)의 대지에서 용이의 아이를 낳는 부분은 그녀의 생산능력에 대한 극단적인 예가 된다.

(…전략…) 짐승같이 비명을 지르고 이빨을 드러내어 바드득 소리를 내던 조금 전의 처참했던 얼굴은 고통 뒤의 평화스런 휴식으로 돌아와 있었다. 슬기롭고 신비하기조차 했다. 맘에 흠뻑 젖어서 아름다웠다. 그러더니 임이네는 잠이 드는가 싶었다. (…중략…)

울부짖으며 임이네를 안았다. 임이네는 떠밀었다. 무서운 힘이었다. 용이는 나자빠지면서 무엇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천지가 벗어버린 것 같은,

19) 인류학자 셸리 아드너와 에드윈 아드너가 사용한 용어로 남성들은 체험할 수 없는 여성들의 경험세계를 뜻한다. 수 스폴, 김정수 역, 『여성비평-일레인 쇼발터 <황무지>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평』, 『현대시사상』(고려원, 1991. 봄), p.91.

20) 아이러니컬하게도 임이네 가족의 생산능력이 칠성이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한 평산은 칠성을 귀녀의 상대로 삼았었다. 그러나 사실상 귀녀가 낳은 아이는 강포수의 아이인 것으로 암시되어 있다. 또한 강청택과 월선에게서 후사를 잇지 못한 용이가 임이네에게서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도 그녀의 풍만한 여성성과 생산능력을 보이는 근거가 된다.

시간도 잊어버린 것 같은 정적이, 그리고 나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파도처럼 방안에 퍼지고 울렸다. 두 주먹을 모은 채 푹푹하게 선 고추에서 오줌이 치솟았다. 임이네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일찍이 용이는 그와 같이 아름다운 미소를 임이네한테서 본 일이 없다. (...중략...)

충만된 기쁨을 서서히 감당해가면서 임이네는 용이에게 지시했다 여왕벌같이 위엄에 차 있었고 자신에 넘쳐 있다. (2 : 411~412)

밀줄 그은 부분에서 볼 수 있듯, 아이를 낳는 그녀는 시종일관 아름답고 당당하며, 슬기롭고 신비하기까지 하다고 표현되었다. 『토지』 전체를 통틀어 임이네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이 부분이 유일하다. 그녀가 지닌 ‘자연인’으로서의 매력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었다. 자연이란 어떤 잣대로 읽어내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만큼 그녀의 모습은 어머니 됨의 절대적인 신비화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 양육에 있어 임이네는 그 모성성의 신비를 탈신화화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아이가 젖꼭지를 물었다고 어린것의 뺨을 치며, 우는 아이를 내팽개치는 어머니(1 : 135)이며, 아이들과 함께 다투어가며 떡을 먹는 어머니이며, 우는 아이를 버려 두고 혼자 밥을 먹는 어머니(2 : 195~196), 아들 흥이를 자기 생존의 매개로 삼는 어머니이다. 양육이라는 현실에서 그녀의 자연성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삶의 당위성 이외에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1)</sup> 한 마디로 모성성이 부재하는 그녀의 행동은 도덕성의 결핍<sup>22)</sup>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준구의 아내 흥씨 역시 모성성이 부재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아들

21) ‘자연인’이란 생리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것, 가치도 의미도 별달리 부여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자연인은 생리적인 삶의 필연성만을 좇지만, 이와 대립되는 의미의 ‘도덕인’은 삶의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이르는 길을 개척하며, 생리적 삶의 필연성 외에 따로 삶의 당위성을 가진다. 김충열, 『유가윤리강의』(예문서원, 1994), p.59.

22) 임이네의 결핍된 도덕성에 대한 논의는 이상진, 앞의 책, pp.56~62 참조.

병수가 곱추인 것이 수치스러워 열두 살까지 어두침침한 골방에서 키웠다(3 : 221). 쾌악스럽고, 욕심이 많은 그녀는 몸단장과 맛있는 음식 먹기로 세월을 보내고, 급기야 멀리하던 자식과 남편도 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탐욕에만 골몰하다가 죽었다. 그녀는 보기 흉한 손등 때문에 상처입고 살았던 양소림을 사랑으로 훌륭하게 키워낸 소림의 어머니 홍씨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어머니이다. 이 외에도 병이 난 아들을 버리고 역시 일신의 편안만을 취한 유인성의 아내는 다른 인물들에 의해 ‘정신적 불구자’로 그려졌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 버린 석이의 아내 양을례 역시 모성성이 부재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성성 부재는 바로 가족의 포기와 직결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인물들은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되었으나, 자식을 버리고 심지어 이용하기까지 하는, 모성이 부재하는 어머니였다. 이것은 작가가 유교주의적 규범에 따라 모성을 결정론적인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음을 뜻한다.<sup>23)</sup> 오히려 모성은 생물학적 생산물도 아니고 의도적인 역할 훈련도 아니며, 관습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 보는 페미니스트들과 생각의 궤를 같이한다.<sup>24)</sup>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작가가 이 인물들에게 모성이 부재하는 원인을 도덕성의 결핍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됨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맺음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도덕성임이라는 작가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 2) 정절의 훼손, 모성성의 포기 : 윤씨 부인의 경우

큰 키에 뼈대가 곧고 여자답기보다 선비 같은 모습(1 : 39)의 윤씨부인

23) 유교적 규범에서 여성은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선천적으로 모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된다. 신경아, 『1990년대 모성의 변화 : 희생의 화신에서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심영희 외 공편, 앞의 책, p.391.

24)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편, 『한국문학과 모성성』(태학사, 1998), p.9.

은 최참판가를 이끌어 온 여주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둘러싼 어두운 사건은 사실상 이 소설 초반부에 모든 갈등의 시초였다. 김개주의 겁탈로 비밀리에 낳은 김환이 하인으로 들어와, 며느리와 도망간 사건이 그것이다. 이 줄거리의 이면을 짚어보면, 며느리 별당아씨가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 원인이나, 최치수가 성격적인 문제 외에 성불구자가 된 원인, 결국 최참판가가 대를 잇지 못하고 비극에 빠졌던 근본 원인이 모두 윤씨부인의 어두운 과거에 있었다. 남편의 명복을 위한 백일기도가 겁탈로 얼룩진 그 사건으로 윤씨부인은 양반가 안주인으로서 범해서는 안 되는 '정절 훼손의 죄'를 지었고, 그 죄의식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전략…) 산에서 돌아오던 날 어머님하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달려온 치수를 뿌리친 그때부터 윤씨부인은 죽은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남편의 아들인 치수의 어미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 의식의 심층에는 부정(不淨)의 여인이며 아내와 어미의 자격을 잃은 육체적인 낙인이 빛은 절망이외의 것이 또 있었다. 찢어진 옷을 낳아서 팽개치고 온 뼈저린 모성의 절망이었다. 전자의 경우 어미의 자격을 빼앗은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스스로 어미의 권리를 버린 것인데 결국은 두 경우가 다 버렸다함이 옳은 성싶다. 그러나 버림은 버림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적악(積惡)이며 그 무게는 짊어져야 하는 짐이었다. (…중략…) 자신의 살을 가르고 세상에 태어나서 쫓겨 한 번 물러주지 못한 채 버리고 온 생명에 대한 소리 없는 통곡과 고독한 소년기를, 비뚤어진 청년기를, 권태에 짓이겨서 폐인을 방불케 했던 장년기를, 그렇게 변모되어 온 최치수를 바라보며 왔던 것이다. (2:209)

아버지로부터 사회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모성을 포기한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안정<sup>25)</sup>을 받지 못한 최치수는 그 결핍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

25) 사회적 권한을 점유하는 가부장(家父長)은 가부장권의 객체인 자녀와 부인에게 사회적 안정(social security)을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애정구조는 주부를 중심점으로 하는 것이니 자녀는 주부인 어머니에게서 심리적 또는 정서적 안정



회화에 실패한 인물이다. 그는 성격파탄자가 되어 자학적으로 제 몸을 학대했으며, 그 결과 성불구자가 되었고 죽음을 예감하고도 ‘어머니에 대한 복수의 심정으로’<sup>26)</sup> 그 죽음을 자초하였다. ‘핏덩이를 낳아서 팽개치고 온 뼈저린 모성의 절망’도 역시 그녀를 둘러싼 삶을 비극적으로 만든 원인이다. 함께 살며 어머니로서 보살피 줄 수 없었던 그녀가 아들 김환에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를 불행하게 했던 그 불륜의 사랑을 인정하는 일이 되었다. 이 운명의 엄힘으로 그녀는 자기를 얽어매었던 반가의 법도를 다시 한 번 어겼다. 그러나 후에 김환은 최치수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모성의 포기가 가져오는 극단적인 결말이 거기에 있다.

사실상 윤씨부인에게 정절의 훼손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고, 또 남편이 죽은 여성이 새로운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반가의 여성과 상민남성이 신분을 떠난 결합을 했다든가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반가의 법도를 어겼다는 것은 유교 윤리사회에서는 바로 죽음을 의미했다. 윤씨부인의 뿌리깊은 죄의식과 모성의 포기는 바로 그 유교윤리가 만들어낸 것이었고, 그렇다면 최참판가의 비극적 몰락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윤씨부인은 자신의 모성성을 포기한 대신 최씨 가문을 반듯하게 꾸려나가는 데 빈틈이 없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겁탈했던 남자도 잊고, 두 아들에게 훌륭한 어머니가 되지도 못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최씨가를 지켜나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최씨가의 몰락과 양반계급의 몰락,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최후도 예감하면서 그녀가 느끼는 것은 자신은 최씨문중의 고공살이, 타인이었다는(2: 314) 여성의 슬픈 현실이었다.

윤씨부인의 삶은 바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버려지고 소외된 삶의 전형이다. 겉보기에 그녀는 한 가문을 온전히 지켜낸 여가장이요,

---

(emotional security)을 얻는다. 이광규, 앞의 책, p.166.

26) 이덕화, 「서술의도에서 본 『토지』의 인물유형」, 한국문학연구회 엮음, 『<토지>와 박경리의 문학』(현대문학의 연구 6)(술, 1996), p.150.

어머니였지만 그녀의 내면을 괴롭힌 슬한 상념의 내용은 정절이데올로기와 모성환원론에 의한 정체성 상실이었다. 그러나 그 상념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놀라게도 그녀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제도와 이념의 문제, 신분제의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녀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하에서란 의미 있었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성을 포기했고 그것은 두 아들의 불행한 죽음을 초래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의미 있는' 가문의 영원한 '타자'이고 그녀에게 가족은 빈 껍데기뿐이었다는 무서운 자각에 이르렀던 것이다.

### 3) 여성성의 회복, 모성성의 거부 : 인실과 별당아씨의 경우

여성에게서 모성과 충돌을 일으키는 요인은 사회참여와 성적 욕망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현대사회의 변화는 이러한 충돌 속에서 여성이 모성 신화를 깨고 당당한 삶의 주체로서는 과정과 함께 했다. 이제 자신의 일을 위해, 혹은 새롭게 찾은 사랑을 위해 자식과 결별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탁하는 경우가 별로 낮설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 많은 여성에게 어머니의 자리와 주체적 여성의 자리는 양립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변동기 여성에게 여성의 독립은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의 포기를 의미했다. 『토지』의 인실은 민족에 대한 현실 참여적 욕망에 의해, 별당아씨는 여성으로서 새로운 사랑을 위해 모성을 거부한 경우이다.

한 가족원으로 만족하는 여성이었다면, 또한 민족 현실을 외면할 수 있었다면 인실은 오가다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사회적 자아는 오가다를 거부했고, 성적 주체로서 그녀는 오가다와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모순 속에서 그녀가 택한 것은 오가다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희생된 것이 바로 모성이었다. 그녀는 '적과의 동침'으

27) 이정옥, 앞의 글, pp.44~45.

로 생긴 아이를 개인의 아이가 아니라 시대의 사생아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다.

임신에 대한 부정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인실의 임신기는 몹시도 황폐하게 그려진다. 그녀는 얼굴과 팔, 어깨죽지는 더욱 여위고, 허리둘레만 커지는(12:38) 외모로 형상화되었다.<sup>28)</sup> 몸 속에서 아이는 자라지만 자신은 철저하게 확대하는 번민에 찬 어머니이다. 뿐만 아니라 인실은 임신한 몸이면서도 음식을 먹는 것을 비천하게 여기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12:58). 물론 식욕이란, 지나친 식욕이란 어떤 것의 욕구불만의 병적 표현이거나 욕망의 무절제일 것이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의 식욕은 분명 찬미되고 긍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것, 곧 모성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육을 포기한 그녀에게 그 행위는 인간의 천박한 욕망의 표현이라는 생각에서 그친다. 심지어 아이의 모자를 사는 행위조차 무료함과 정체감을 달래기 위한 배회의 결과로 그려졌다. 이러한 묘사는 그녀에게 모성이나 연민이라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라는 감정, 죄의식에 시달리는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이것은 그녀의 민족적 자존심을 높이 사고, 기꺼이 아이의 양육을 맡아 주는 조찬하라는 인물의 연민 어린 시선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별당아씨는 자식을 버린 어미요, 시동생과 간통하여 달아난 여인이다. 따라서 길보기에 남편과 아이를 두고 달아났던 양을례나 석양순, 익란(박의사의 전처)이나 다를 것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별당아씨는 분명 그들과과는 다른 코드에서 그려졌다. 불륜으로 얼룩진 그 사건이 차라리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려진 것이다. 그녀는 주로 김환의 꿈과 추억 속에 소중

28) 『토지』에서 인물의 외모는 도덕적인 지표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즉, 얼굴빛이나 눈, 입의 모양, 신체의 크기와 체형 같은 것이 바로 인물의 인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평산이나 흥씨, 조준구, 임이네 등 사악한 인물들은 모두 비대한 몸집이 강조되어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임신한 인실의 야윈 모습은 그녀의 괴로운 상황을 드러내는 동시에 도덕적인 지표로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진, 앞의 책, pp.221~224 참조.

히 간직된 인물로 나오는데, 김환이라는 인물의 신비로운 카리스마에 의해 긍정적인 인물로 느껴진다. 또한 그녀를 도와 준 윤씨부인이나 우관 선사가 긍정적인 인물인 점에서도 그렇다.

작가는 당대로서 분명한 도전이었던 이 불륜의 사건을 시종일관 소문과 회상, 꿈으로만 전달하면서 신비롭게 채색하였다. 작가는 이들의 사랑을 정면으로 내세웠을 때 진실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감춘 것이고 또 진실 자체에 대한 독자의 상상을 위해 신비의 베일을 씌운 것이라고 말한다.<sup>29)</sup> 그 결과 이 도전적 행동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별개의 서사로 읽히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분명 신분제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그녀의 사랑과 도망은 내내 소문으로 정리되지만 그 소문을 전달하는 민중들의 태도에는 은근한 동일시가 들어있다. 그것은 거듭되어 온 신분제적 갈등에 대한 해소로서 대리만족을 가져다 준 까닭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냉정하고 병약한 남편 앞에서 별당을 지키며 사장되어야 했던 한 여성의 자각이다. 부모에 의해 ‘강간결혼’<sup>30)</sup>을 당한 후 무료하고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던 한 가녀린 여성이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그 행동은 여성으로서 당당한 성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 5. 가족원 되기와 매개적 모성성 : 월선과 서울네의 경우

수동적인 여성은 절대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상대적인, 즉 가족을 통해서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가진다.<sup>31)</sup> 또 한편 여성의 독립적

29) 박경리, 『인간탐구』, 『박경리 강의노트-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현대문학사, 1995), pp.283~285.

30) 20세기 초 부모의 뜻대로 시키는 결혼을 여성들은 ‘강간결혼’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김진송, 앞의 책, p.212.

31) 생물학적인 성에 근거한다고 생각되어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열등한 존재로 정의되는 <여자>는 성인이 되어도 아내, 어머니라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자기

인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은 여성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경제적 지위를 확보해주는 모성보상체계로서 엄존한다.<sup>32)</sup>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이 가족, 특히 모성성에 의존적인 이유는 자녀의 재생산에 그 정체성을 고착시키는 데 있다. 여성이 남성과의 경쟁에서 자주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지는 것은 이러한 여러 원인에 의해 안락한 가정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약했던 시기에 경제적 사회적인 독립은 매우 어려웠다. 근대성이 형성되던 20세기 초반에 독립을 선언했던 신여성이 오히려 남성의 완롱물이 되고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았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여성, 가장이 부재하는 집안의 여성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다. 이러한 여성의 고민과 어려움은 『토지』의 임명희와 길여옥의 삶에 잘 그려져 있다.<sup>33)</sup> 그러므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대부분의 여성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일도 기꺼이 해내었다.

“죽어서 물 한 모금 얻어 북을 굿도 없이 허공에 떠도는 망령도 가련치만은 살아 생전에도 마찬가지다. 아무튼지 간에 자식 없는 것은 사람도 아니네라. 자식같이 좋은 울타리가 어디 있일 기라고. 범의 장다리 걸은 아들들만 있어보제? 껌히 누가 업신여길 기든고?” (3 : 49)

마을 왔던 이웃의 증늬음이 이 딸은 자식의 재생산을 일생의 낙으로

---

정체감(identity)을 갖게 되며, 이러한 역할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된다. 정요섭, 『한국 여성의 가치관 변천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9집, pp.48~50.

32) 문소정, 『한국여성운동과 모성담론의 정치학』, 심영희 외 공편, 앞의 책, p.84.

33) 명희는 별거로, 여옥은 이혼으로 남편과의 충돌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다. 그러나 같은 처지의 선택와는 달리 이들은 다시 가족을 형성하지 않은 채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지탱한다. 이 여성들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느 누구도 아이를 갖지 않아 모성과의 갈등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알았던 어머니들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용이의 낭만적 사랑의 대상이었던 월선은 어긋나는 운명 때문에 가족을 이루는데 실패하였다. 그녀에게 첫 번째 장벽은 무당의 딸이라는 신분이었고, 두 번째 장벽은 불임이었다. 불행히도 그녀는 신분의 문제로 사랑하는 용이와 맺어지지 못했고, 나중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월선에게서 불임에 대한, 즉 여성으로서 모성성을 획득하지 못하는데 대한 욕구 불만과 가족이 없는 외로움은 이웃집의 아이 천석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드러난다. 월선은 결방에 사는 천석이 양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무당의 후손이라는 설움을 전하지 않아도 되니 아이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신분의 문제로 당당한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상황,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살아야 했던 운명은 월선 모녀의 공통된 삶의 기의이다. 월선은 어머니 월선네가 아비를 닮은 자기를 보고 위로를 삼았듯, 어머니로서 결격인물인 임이네로부터 홍이를 데려다가 ‘임 보듯이 니를 보고, 보고 저를 때 니를 보고’(3:51) 살게 되었다. 아내로서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한 대신, 남자의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 붓게 되었고, 그것은 홍이에게 영원히 ‘그리운 어머니’로 남게 했다. 아이에 대한 헌신적 사랑은 불임에 대한 대리충족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충족이요, 간절히 원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월선의 불행은 결국 홍이에 대한 모성을 통해 극복된 것이다.

두만의 두 번째 아내 서울네는 권력관계로서의 모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기성네와 다름없이 볼품없는 외모의 서울네는 그녀의 탁월한 경제력으로 두만의 아내의 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시부모가 인정하는 며느리도 그 아들의 어머니도 되지 못했다. 작품에서 그녀는 기성네의 그늘에서 거칠게만 그려진다. 둘 다 불행한 여성이었지만, 기성네의 인내에 가려 서울네는 오히려 악역으로 비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네의 내면을 보여주는 다음 부분은 그녀의 불행을 연민으로 바라보게 한다.

소유를 위하여 서울네는 긴 세월을 걸어왔다. 한 남자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편을 소유하기 위하여, 아들 둘을 소유하기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남들보다 우월하며 남들에게 군림하기 위하여, 그런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야만 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김두만이 아니어도 그랬을 테니까. (15 : 40)

서울네는 정실은 아니었지만 남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큰아들 기성에게만큼은 그녀의 모성이 통하는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두만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 비참하게 버려졌다. 월선이가 아이를 통해 종국에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행복한 죽음에 이르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네가 불행한 삶에 떨어지게 그려진 것은 작가의 분명한 도덕적 잣대에 의한 것이다. 즉, 월선의 불행은 인격적 결핍이 아니라 잘못된 신분제와 생리적 문제에 있었고 순수한 사랑으로 이를 만회한 반면, 서울네는 ‘소유’의 욕망, 분명한 지위를 가지고 군림하고자 하는 불순한 욕망 때문에 결국 버려졌다. 그러나 불순한 욕망이란 결국 잘못된 사회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가족을 이루지 않고는, 남자와 자식이 없고는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 만들어낸 왜곡된 욕망이었음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두만에게 버려졌던 두 여자, 기성네와 서울네의 불행은 그대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과도기의 현실 속에서 악용된 가장 나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6. 결론 : 모성성과 생명

지금까지 보아왔듯, 작가는 생물학적 모성을 긍정하지도 않았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편에 선 것도 아니었으며, 현실에 순응하는 여성을 두둔하지도 않았다. 자식을 낳고도 모성성을 가지지 못하는 인물과 제 자식이 아니어도 헌신적으로 보살펴주는 인물을 동시에 그렸으며, 가부장제의 악법을 지키며 인내와 자존심으로 가족을 지키는 인물과 자신의 성적 욕망, 혹은 사회적 욕망을 위해 가족과 아이를 버리는 인물을 동시

에 그렸다. 중요한 것은 작가가 많은 어머니들을 그리면서 그 누구에게도 분명히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여성, 어떤 어머니의 형상화에 집중하여 작가의 생각을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토지』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욕망과 당대의 현실이 결합된 결과, 여성의 욕망이 가족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문제가 전통가족과 모성성의 문제로 전이되어 그려졌다. 가족을 떠난 신여성을 그렸지만 그들의 갈등요소 중에 모성성이 부재하고 있으며, 서사의 정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증거이다. 또한 각 인물이 처한 상황을 중시하면서도 도덕적인 요소에 의해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는 것도 어머니의 형상화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이다. 곧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인물이 역시 긍정적인 어머니가 되었고, 자식의 재생산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생득적이고 절대적이며 신비화된 모성은 아니었다. 어느 어머니나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가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더 부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박경리는 생물학적 모성성보다 도덕성의 발현과 인간적 사랑에서 비롯되는 모성성, 그리고 삶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힘으로서의 모성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작가의 생각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토지』의 마지막 권에 정용을 끌려갔다 도망한 홍석기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온다. 도망치던 중에 그는 한 일본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할머니는 정용 나간 자기 아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석기를 도와준다(16: 202~207). 제 아들의 생명을 위해 적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모성이 바로 생명의 완성이다. 제 아이의 생명이 귀하다면 타인의 생명도 귀하다는 생각은 가족과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떠나 대지의 생명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박경리는 기르는 것, 모성이야말로 ‘창조의 위대한 원동력’이라고 말한다.<sup>30)</sup> 그것은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기초이다. 그녀는 수많은 생명을 균형과 조화에서 벗어남이 없이 길러내는 대지의 모성에서 시작



하여 생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축했다. 생명에 대한 연민은 자기 생존 본능을 앞지르며(13 : 105), 정체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긴 소설의 제목이 ‘토지’인 것은 바로 이런 모성적 대지와 인간적 욕망이 얽혀서 이루어지는 삶을 그려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지』에서 읽은 모성성의 여러 형태는 처음에 지적한 대로 무한한 포용력을 지닌 대지적인 모성, 무조건적인 연민과 사랑이 그 현실태, 즉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가 현실과 부딪치며 생긴 문제가 결합된 결과이다. 따라서 가족과 모성성으로 한계 지어졌던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성의 문제는 생명사상과의 연관 속에서 한 차원 높여 논의될 때에만 그 온전한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희 외, 『『토지』에 나타난 여성문제 인식과 역사의식』, 『여성』 3호, 창작과비평사, 1989.
- 김충렬, 『유가윤리강의』, 예문서원, 1994.
- 김진송, 『현대성의 형성—서울에 만스홀을 허가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 박경리, 『토지』 1~16권, 숲, 1994.
- 박경리, 『박경리 강의노트—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현대문학사, 1995.
- 백지연, 『박경리의 『토지』—근대체험의 이중성과 여성주체의 신화』, 『역사비평』, 1998. 여름.
- 베리 쇼온·매릴린 알롬 엮음, 권오주 외 역,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아카데미, 1991.
-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편,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 서정미, 『『토지』의 한과 삶』, 『창작과 비평』, 1980. 여름.
- 수 스펠, 『여성비평—일레인 쇼왈터 <황무지에 있는 페미니스트비평>』, 김경수 역, 『현대시사상』, 고려원, 1991. 봄.
- 심영희·정진성·윤정로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 1999.

34) 박경리, 『구성과 총체성』, 앞의 책, p.134.

-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75.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연구』, 일지사, 1983.  
 이상진, 『<土地> 연구』, 월인, 1999.  
 임정빈·정혜정, 『성 역할과 여성』, 학지사, 1997.  
 정요섭, 「한국여성의 가치관 변천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9집  
 정현기 외, 『한·생명·대자대비』, 솔, 1995.  
 조세핀 도노번,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3.  
 조은·이정옥·조주현,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출판부, 1997.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 강의』, 동녘, 1991.  
 한국문학연구회 엮음, 『<토지>와 박경리의 문학』(현대문학의 연구 6), 솔, 1996.

## Abstract

### The Problem of Family and Maternity in *Toji*

Lee, Sang - Jin

In *Toji*, which is evaluated as a family-roman,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reality in which the woman had to identify themselves through maternity and the life as self-reliant-woman are represented as various kinds of maternity. They are the characters who shows devotional maternity to children while being waiting for her runaway husband, who escapes from the family because of her lack of morality or self-reliant choice and loses maternity, and who finds the maternity by adjusting herself to the family system. The author reveals the moral superiority of women through the sacrificing image of mother. She also indicates a problem of the faithfulness-ideology in relation to the maternity and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recovery of femininity, and on the other

hand, she suggests lack of maternity mainly result from moral defect. And she brings up a problem of morality by characterization of two characters who tried to build their families through the medium of maternity in the days when social security toward women was fee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feminism, the evaluations on *Toji* are contradictory. However, assuming that *Toji* is an unique narration in which close exploration of various life is made, it is dangerous to understand and estimate it mainly based upon a character's life. The author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tolerance of maternity as a basis of compassion and love toward every living, and describes the process in which a mother, as a human being, faces the problems of realit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uld be connected to discussion in which the author's thought of 'Saengmyung'(living things) and maternity are related to each other.

